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2년 7월 1일(금)		all ways INCHEON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총 3매			
담당 부서	총 무 과	담 당 자	• 총무팀장 안동수 ☎440-2501 • 담당자 박인준 ☎440-250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취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

- 현충탑 참배,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어르신 배식봉사 등으로 첫 일정 시작 -
 - 제물포 르네상스 시작점인 인천항 내항 8부두에서 ‘나눌래 시민축제’ 개최 -

유정복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님이 7월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님이 취임 첫 날 수봉공원 내 현충탑 참배로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으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에는 시청으로 출근해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한데 이어, 구내식당 근무자, 청원경찰, 미화원 등 현업부서 관계자들과 민원실·코로나19 근무자들을 차례로 격려했다.

또, 점심시간에는 미추홀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배식봉사를 하면서 시민들과 첫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인천시는 민선8기 출범을 기념해 7월 1일 오후 7시부터 인천항 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 야외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제1회 나눌래 시민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장인 내항 8부두는 유정복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의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유 시장이 원도심 균형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날 행사는 취임선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메시지 낭독과 해외자매도시 시장들의 축하영상을 비롯해 인천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 등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정복 시장이 직접 작사한 ‘꿈의 나라’를 부른 가수 양하영, 인천이 낳은 유명가수인 송창식 등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시민문화축제로 펼쳐졌다.

또, 행사장 주변에서는 인천의 역사가 담긴 작품 전시회가 열려 함께 참석한 시민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천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도시”라며,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힘차게 시작하고, ‘균형’, ‘창조’, ‘소통’ 3대 핵심 가치로 반드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균형’을 바로 세우고자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 제물포를 혁신 모델로 만들고, 촘촘한 교통망 연결로 ‘올웨이즈 인천2.0’ 버전을 다시 시작하는

한편,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과 청년 인재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또, “둘째, ‘창조’를 바탕으로 인천을 세계 초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뉴홍콩시티를 통한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유치 및 일자리 창출, 4차 산업과 미래형 신성장 산업 육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필’ 환경시대를 열어가겠다” 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셋째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시민 중심의 ‘소통’ 시대를 열어가는 한편,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초월해 언제든지 소통하겠다” 고 피력했다.

끝으로, “시민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어 오직 시민만 보고, 인천과 미래만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일하겠다” 는 소신으로 300만 인천 시민들과의 첫 인사를 마무리했다.

<참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취임사

※ 관련 사진은 행사(19시) 이후

-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only.webhard.co.kr)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